

(주)하림

▶ 창립 25주년 기념식 개최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지난 10월 6일 본사 대강당에서 계육산업 발전과 하림 성장 동력의 주역인 500여명의 임직원과 이문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립 25주년에는 50명의 장기근속자(20년 6명, 15년 44명)가 배출됐으며, 이문용 사장은 장기 근속자에게 일일이 직접 기념패와 기념품을 수여했다.

이문용 사장은 창립기념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세계시장 진출이 시작됐으며, 변화와 끝없는 개선, 제품 개발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조정실장 정호석 이사는 2011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공유했으며, 2012년 원가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함께 극복할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주)하림은 지난 1986년 (주)하림식품을 설립한 이래 대한민국 계육산업을 이끌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수직통합계열화 사업을 전개하여 농장, 공장, 시장까지 수직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해 계육산업의 발전과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투기산업으로 평가되던 국내 계육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축산업에 커다란 획을 긋는 등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성공의 단맛과 실패의 아픔을 겪으면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전통있는 닭고기 사업체인 알렌 패밀리 푸즈(Allen Family Foods)사를 인수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대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상생의 기업문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또한 지속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사고, 섬김과 열정으로 하림이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 모두가 힘써나가고 있다.

▶ ‘2011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주)하림은 한국지속가능경영평가원이 주관한 ‘201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사회공헌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평에서 열린 ‘201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상을 수상했다.

하림은 지속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녹색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실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친환경, 윤리경영을 기업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상생의 기업문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하림의 성공기업 Case study



(주)하림은 IGM(세계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앞서는 최고의 강소기업'에 선정돼 IGMP plus 조찬 강연회 자리에서 성공한 경영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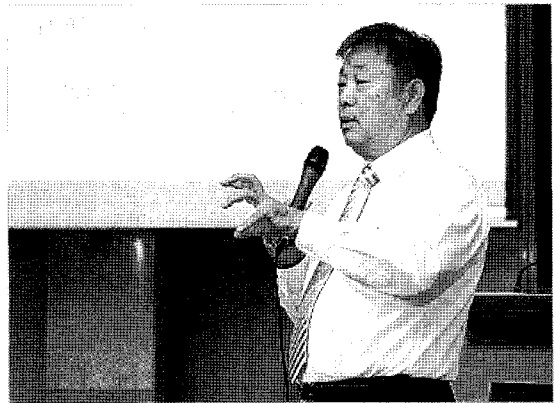
지난 10월 19일 서울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에서 <CEO700인 클럽> CEO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회는 성공기업의 경영혁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천적 경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권상술 IBM 교수가 '양계장에서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하림의 경영혁신 성공요인을 분석해 소개하고, 이문용 사장이 직접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강연회에 참석한 (주)플러스비 정수민 대표는 이번 강연을 듣고 "하림의 경영혁신활동에 감명 받았다"며 "우리기업에도 적용할 점들을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회 주관사인 IGM측의 강연만족도 설문조사에서 10점 척도에 9.2점으로 조사돼 매우 우수한 강연회로 평가받았다.

▶ 이문용 사장, 우석대 특강



(주)하림의 이문용 사장은 지난 10월 20일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 강단에서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꿈꾸며 도전하는 젊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하나로 지난 6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CEO들을 대학으로 초청해 기업의 정보와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이문용 사장은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은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 성장시키고, 꿈을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문용 사장은 끝없는 도전과 개선노력의 결실을 연꽃연못의 우화를 예로 들어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들은 어느날 갑자기 누적되어 나타난다"며 "미래를 고민하고, 더 큰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하림의 선진화된 미래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정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참석한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1사1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주)하림은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대승한지마을에서 하림사랑나눔 봉사단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사1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하림사랑나눔 봉사단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농가의 감수확을 돕고 한지마을을 찾아 지역 농민들과 함께 한지생산의 주원료를 쓰이는 닥나무 삶기, 닥나무 껍질 벗기기, 부재료로 쓰이는 황촉규의 씨앗 털기와 뿌리 캐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하림사랑나눔 봉사단은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을 비롯한 다양한 닭고기 요리를 대접하며 경로효친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도현 사우는 "농촌일손도 돕고 전통 한지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해 본 좋은 기회였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지만 농민의 땀과 정성을 새롭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하림은 2008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사랑의 쌀 전달, 불우이웃 돕기, 문화예술계 후원, 장기기증서약, 헌혈봉사, 경로행사, 자연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눔과 봉사를 더욱 활발히 펼치고 있다.

▶ (주)마니커

▶ 신입사원 입문교육 시행

(주)마니커(대표이사 김선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공채 36기 최종합격자 12명에 대한 합숙교육을 시행했다.

본부교육과 극기훈련, 사업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입문교육 참가자들은 회사에 대한 이해와 마니커인으로서 꼭 갖춰야 할 소양교육은 물론 정신력과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조직력 개발훈련까지 다양한 과정을 이수했다.

모든 교육을 수료한 공채 36기 신입사원은 향후 생산, 영업, 지원 등 중추부서에서 마니커의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된다.

▶ 계룡산 등반대회 개최

(주)마니커 본사의 계룡산 등반대회가 지난 10월 1일 열렸다.

초가을 맑은 날씨 속에서 열린 이날 등반대회는 아침 일찍 동학사에서 출발하여 정상인 관음봉을 거쳐 감사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는데,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관음봉에 올라 마니커인의지와 단결력을 과시했다.

이날 등반을 마친 전 임직원은 뒤뚱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해산했는데, 마니커



는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를 열어 임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소요단풍문화제 참가



(주)마니커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소요산 입구에서 열린 소요단풍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마니커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배포하고 단풍과 함께 즉석사진 촬영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쓰레기 봉투를 채워 오는 등산객에게 구조요청용 호루라기를 나눠주는 행사는 실질적인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여 관광객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

(주)마니커는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 행사에 임할 계획이다.

▶▶ 동두천공장 팔씨름대회 개최



(주)마니커 동두천공장 임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팔씨름대회가 지난 10월 4일부터 장장 17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500여명의 공장 전 임직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푸짐한 상금까지 걸려 있어 참가자들의 의욕을 불러 일으켰는데, 최종 우승은 포장반의 채븐릿(남)과 물류팀의 오명숙(여) 사원이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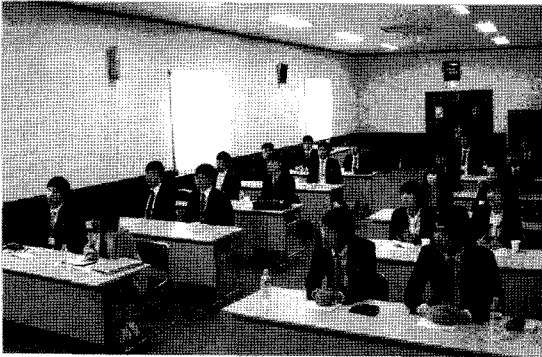
(주)동우

▶▶ 2012년 사업계획 영업전략 워크샵 개최

(주)동우(대표이사 정창영)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북 김천 소재 Park Hotel에서 2012년 사업계획 영업전략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워크샵에서 정창영 대표이사는 "2012년 '품질, 수익, 성장 1위 기업 달성' 목표를 이루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동우가 되자"고 강조했다.

▶▶ 인턴사원 orientation 실시



(주)동우는 지난 10월 28일 신입사원 20명과 함께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orientation(OT)을 가졌다.

이날 OT에서는 신입사원들의 간략한 자기소개와 아울러 회사규칙 및 교육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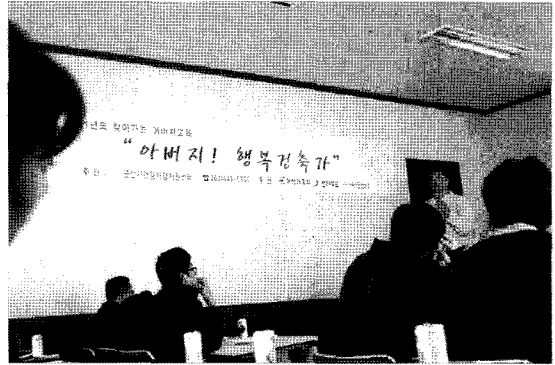
(주)동우의 한 관계자는 “동우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며, “교육일정 동안 창의적이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동우의 앞날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임직원대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실시

(주)동우는 지난 10월 28일 대회의실에서 군산 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관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 교육을 실시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아버지! 자녀들의 행복건축가’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아버지 교육 강의를 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요달 강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 아버지와 함께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멋진 아버지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아



이들과 어울리고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 전 임직원 추계 단합대회 개최



(주)동우는 지난 10월 27일 서울대공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12년 동안 매년 가을에 전 임직원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행사로서 부서간의 이해와 본부별 단합을 통한 ‘하나 되는 동우’로 거듭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주)올품

▶▶ '2011 올품가족 화합 한마당' 개최



(주)올품(대표이사 변부홍)은 성수기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품 가족의 단합을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2011 올품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가공공장, 영업본부 등 550여명의 전 임직원이 참석하여 문경새재 3관문부터 1관문까지 산행을 하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이후 야외공연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훈섭 과장(기획조정팀)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을 즐겁게 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변부홍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품 가족 구성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합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팀별 장기자랑에서 참가자들은 곱사춤, 개그콘서트 패러디, 창부타령 등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최우수상은 사랑의 트위스트(설운도)를 복고풍 의상과 춤으로 보여준 생산2팀 절단반이 차지했다.

마지막 순서로 대형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LED TV 등 푸짐한 상품을 놓고 경품 추첨행사가 진행됐으며, 생산2팀 김양자 사원이 대상인 대형 양문형 냉장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울러 주변 청소를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4/4분기 경영발표회 및 코스모스 사진 공모전 시상 실시



(주)올품은 지난 10월 10일 4/4분기 경영발표회에서 여름 성수기 동안 올품가족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며 4/4분기 이후 예상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코스모스 사진 공모전 입상자를 발표하며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입상작은 회사 내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했다. 